이타스와 함께한 Formula Student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

전 세계 대학생들의 자작자동차대회인 Formula Student는 고성능 모터스포츠,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의 새로운 기술 도입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독일에서 연례로 진행되는 경주 대회로, 전 세계 118개 팀이 참가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이타스는 독일 Formula Student의 주요 파트너이자 스폰서였습니다. 올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뿐 아니라,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30개 이상 팀들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각 팀들이 대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타스의 제품은 특히 드라이브 시스템 개발에 많이 사용되며 편리한 사용법, 넓은 사용분야, 광범위한 업계 지원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이타스에게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우수한 인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독일 Formula Student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내연기관부문 참가자는 기성 자동차와 경쟁하며, 전기차 부문에서는 전기차 간에 서로 경쟁합니다. 1년 전에 신설된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코스를 완주해야 합니다. 세 부문의 공통점은 대회에 참가하는 자동차의 동력학적 성능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13회 Formula Student는 201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호켄하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타스는 행사의 메인 스폰서로서 행사장 내에 대형 부스를 마련하여 참가자들과 만났습니다.

행사 첫날인 월요일에는 대회 참가 차량의 안전성과 경주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자동차 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배석한 가운데 각 팀의 사업계획, 비용 보고서 및 엔지니어링 설계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요일은 각 팀이 속도 테스트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테스트는 운전연습장의 8자 모양 코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횡 가속도를 낼 수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속도 테스트에서는 차량이 7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의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각 팀은 다음날 진행될 내구성 테스트의 시작 순서를 결정하는 오토크로스 (autocross) 훈련에서 정면 승부했습니다. 길이 22km의 코스에서 진행되는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중도에 운전자를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며, 경주용 자동차의 내구성을 측정합니다.

대회의 결과를 보면, 내연기관부문에서는 슈투트가르트 대학 팀이(University of Stuttgart) 그라츠 기술대학 팀(Graz University of Technology)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우승하였습니다. 전기차 부문과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는 과거에 2년 연속 우승경력이 있는 ETH 취리히의 AMZ Racing팀이 다시 한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타스는 이 대회에서 수년간 많은 우승팀들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우승팀들 역시 이타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을 통해 경주용 자동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승한 모든 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저자

클라우스 프로니우스(Klaus Fronius), 이타스, 대학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 FSG, Zhao